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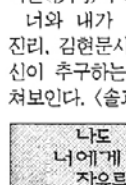
▲붓다의 대에언=현재 우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행동과 말이 쌓여 새로운 행동의 방향이 업력(業力)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함경>안에 있는 경전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주고 부처님의 말씀과 현대과학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저자는 범어사 금강암 정목스님. <출판시대, 7천원>



▲극락세계 3=불교출판부가 내놓은 '극락세계 시리즈'의 세번째 권. <불설아미타경>을 해설한 것으로 극락세계에 대한 건립과 장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역사 공과스님 특유의 시의적절한 해설이 이해를 도운다. <불교출판부, 7천원>



▲비람의 노래=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청천(靑天)에 들 수 없는 것이 새 뿐이라 산들도 나무, 짐승들도 산문(山門)에 들어서면 사문(沙門)이 되는구나. 너와 내가 풀이 아닌 한나라는 진리, 김현문시인은 이 시집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불국토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솔과학, 5천원>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좌선을 하고 앉아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봐,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야' 무용가 홍신자씨가 딸에게 주는 사랑과 자유, 명상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서정적인 언어로 말한다. <안그라픽스, 7천5백원>

스스로 깨달을 것이냐 신의구원을 받을 것이냐

유재신씨 '불교와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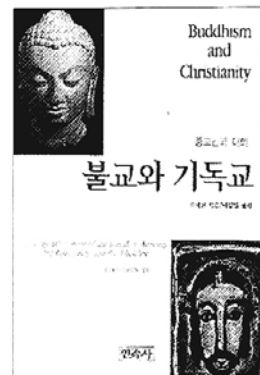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붓다에게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붓다는 그 소년을 살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다만 "집안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집을 찾아 그 집에서 작은 불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한편 예수는 한 관원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말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 살려냈다. 붓다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이성과 인생무상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통해 죽은 문제를 풀도록 한 반면 예수는 기적을 통해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이다. '지혜의 눈'과 '이성을 초월한 신앙', 두 종교가 출발하면서 드러낸 극명한 차이점이다. 유재신씨(한국종교문화연구원장)가 펴낸 <불교와 기독교>(민족사)는 불교와 기독교간의 유사점과

붓다와 예수의 권위 승가와 교회의 본질 계율등 비교·분석

차이점을 붓다와 예수 두 교조(敎祖)의 권위와 승가와 교회의 본질, 계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경과 성경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놓은 기존의 비교서와는 달리 초기 불교와 기독교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발전과정과 구조를 파악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독특하다. 저자가 말한 '초기'의 개념은 붓다와 예수의 사후 1백년에 걸친 시간이다. 초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비교하기에 가장 좋다는 판단에서다. 저자는 먼저 붓다의 권위는 교리



와 법을 주는 자로서 자율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예수의 권위는 율법보다 우월하며 타율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즉 불교가 개개인의 해탈을 위해 법을 추구한 자율적인 신앙으로 자리잡은데 비해 기독교는 예수가 신앙의 목적인 타율적인 절대적 신앙이라는, 두 종교의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앙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불교가 법·율에 기초한 반면 기독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예수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2백50개의 계율과 승려회회 등은 불교 연합을 도모해



주는 초기 기독교가 갖지 못했던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계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교에서의 계율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자명한 교훈이라면 기독교의 계율은 신 중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혜와 명상을 동반하는 인격적 모범을 강조하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본받는 생활방식을 요구했다는 차이다. 저자 유재신씨는 신학대학을 나왔으나 한·중·일 삼국불교를 연구했으며, <초기 조선 불교> <한국 불교 개론>을 펴낸 바 있다. 또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동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문화와 불교를 서구 학계에 널리 알려 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불교용어사전' 출간

8만여 용어풀이...팔리어등 원어도 표기

8만여개의 용어를 쉽게 풀이한 <불교용어사전>(경인문화사)이 2권으로 출간됐다. 이 사전은 기존에 나와 있는 <불교대사전>(홍법원)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용어설명에 있어 현대적 어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활자체를 크게 해 편안함을 도운 것도 일반 사전류와는 다른 점이다. 사스크리터어 팔리어 티벳어 등 원어를 표기해 일종의 원어사전 구성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파나 시대에 의해 읽기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수록했다. 또 현대 일상용어라든가 서양 철학의 번역어 가 옛 불교문헌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박애(博愛)·평론(評論) 등 현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불전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검토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이나 현대어 중에서 불교적 색채를 띤 용어들도 표제어로 설명해 놓았다. 지난 74년 작업을 시작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이제서야 마무리를 하게 된 한상하씨(경인문화사 회장)는 "사부대중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출간의미를 밝혔다. 각 권 8만5천원 한명우 기자



화엄사상의 요체 알기쉽게

탄허불교문화재단 '화엄경론회석' 펴내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전으로, 대승경전 중에서도 교학적·사상적으로 불교의 핵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경전이다. 따라서 이 경전에 대한 주석서도 여러 형태로 찬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화엄사상의 핵심을 가장 잘 밝혀 놓은 것으로는 당나라 이현통(635~730)이 지은 <화엄경론>이 꼽힌다.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탄허스님 15주기 기념으로 펴낸 <화엄경론회석(華嚴經論會釋)>은 <화엄경론>의 여러 편(編) 중에서도 화엄사상의

요체를 개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는 이현통의 <화엄경론회석>을 탄허스님이 현대·번역하고 후학인 각성스님이 강해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현통은 출가사문이 아닌 거사의 신분으로 전통적인 화엄학 위에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창조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화엄경>을 해석하면서 이현통은 다른 주석서와는 달리 선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화엄세계보다 더 이상의 경지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책 앞부분에서는 이같은 이현



통의 화엄사상을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화엄종 4조(祖)인 청량국사 징관과의 화엄관 비교를 통해 이현통의 화엄관이 갖는 특징과 오늘날 화엄학에 미친 영향 등을 밝혀 놓았다. 값 5만원. 한명우 기자

'밀교학연구' 제1집 발간

대한불교 진각종(총무원장 성초)이 지난해 가을 창종 50주년 기념으로 개최했던 밀교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단행본으로 묶은 학술지 <밀교학 연구>(진각종 교육원) 제1집을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한국 밀교의 특성과 법신사상'(서운길·동국대학교수) '한국에서의 밀교의 수용과 전개'(홍성스님·중앙승가대학교수)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학술발표회 당시 받아들였던 토론 내용도 그대로 담겨있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음사
2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국문화사
3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반영규	솔바람
4	불교인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5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사성	장승
6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7	불교개론 강의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8	가슴을 찌르는 부처님 말씀 열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9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찬우	보현각
10	는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결 외	예문서원

구입문의:(02)737-0695

소원성취 하소서

해성스님 지음

기도는 나와 이웃 모두 살리는 길



질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병을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된다. 병이 발생하기까지의 잘못된 일상을 참회하고 그 병에 매달려 일으킨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해성스님(도선사 회주)이 쓴 이 책은 소원성취란 바로 그러한 중생의 삶이 보살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특정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등장해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일상에서부터 부처님에 의해 구제 받은 인물들, 선문담 등 60여가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밀알, 7천5백원>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

윤보스님 지음

희망을 버리면 삶을 포기하는 것



인생은 희망이 있다. 오늘 괴로움과 시련으로 희망을 버린다면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 즐겁지 않은가.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임을 알기만 한다면.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는 스님이 불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차 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 사랑과 우정 등 생활 속의 소재들을 통해 읽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수필집. 윤보스님은 보국불교 열불종 중정으로 현재 경주시 안강읍 대흥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효형출판, 8천원>

화두와 참선

운주사 편집부 편역

선사들의 일화로 배우는 참선법



어떤 스님이 선의 근본 이치를 들려달라고 조주선사를 졸랐다. 그러자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했다. "난 지금 오줌이 급해, 생각해 보게나.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내 자신이 직접 하는데..." 깨달음은 치열한 자기 고민과 뼈를 깎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이 책은 허운대사의 <참선요지>와 좌선법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는 <좌선>을 편역한 것으로, 참선에 관해 '왕초보'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여져 있다. 내용이 쉬워 '선이 이렇게 쉬운건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 참선의 개요와 함께 입문방법과 참선방법 등이 스님들의 일화와 함께 재미있게 펼쳐진다. <운주사, 3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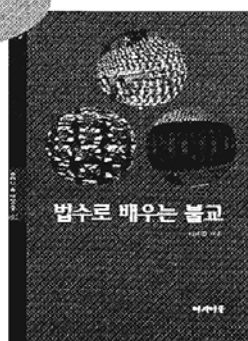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관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껏 지음●
B6 변형 136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강(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운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번(七辯), 칠불통계(七佛通戒條), 팔난(八難), 광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형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제(衆), 53천지식(善知識),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법수로 배우는 불교